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15. 1. 15(목) 16:00~17:4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6명)	서혁(교무처장), 석인선(학생처장), 이외숙(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유혜련(외부전문가), 정새미(대학원 대표)		
불참자 (3명)	김미환(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우지수(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임재희(건강과학대학 공동대표)		
안건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및 예산(안) 심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6명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확인한 후, 2015년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시작하다.</p> <p>□ 회의내용</p> <p>- 전날 교육부장관과 총장 간담회에서 언급된 등록금 동결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다.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당부하며 2015년 등록금 책정 및 예산 심의 시작을 제안하다.</p> <p>- 재무처는 지난 회의에서 학부, 대학원 등록금 2.4% 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총장의 등록금 동결 의지를 반영하여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 대비 투자비용이 큰 일부 전문·특수대학원에 한해서는 등록금 2.4%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다.</p> <p>- 교직원 위원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전문·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재무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나, 올해에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등록금을 동결함으로써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학교의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p> <p>- 학교 적립금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외</p>		

부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본교의 기금은 기부자와 동창,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으로 적립한 것으로, 장기발전 사업이나 세대간 공평 배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실질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또한 기금은 기부자의 의지와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장학, 연구, 건축 등 목적에 따라 적립되어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답하다. 현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기금의 원금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원금이 감소하면 후배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됨으로 기금의 원래 목적과 용도를 해치게 된다고 설명하고,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과 기금 인출로 향후 몇 년 안에 기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다.

- 외부 위원은 올 한해로 적자 상황이 종료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십수년간 안정적인 투자로 늘려온 기금을 몇 년 안에 다 사용하게 될 것 같아 염려가 되며 학교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 검토와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과제 마련을 제안하다.

- 교직원 위원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산안에도 일부 수입 증가 의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TFT 등을 구성하며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학생 위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등록금 외 다른 재원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 내부 사정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다.

- 학생 위원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대학원 대표로서 참석한 만큼 일반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도 동결할 것을 제안하다.

- 교직원 위원은 일부 환원율이 높은 대학원의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재무처의 입장은 알겠으나, 총장의 의지도 충분히 표현되었고 학교의 이미지도 고려한다면 일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학부와 대학원 모두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다.

- 재무처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위원들은 동의하다.
- 회의 재개 후, 재무처는 학교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많은 고민이 되었으나, 총장의 등록금 동결 의지와 여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 대학원의 정규등록금과 계절학기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을 모두 동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말하다.
- 위원들이 학교의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부, 대학원 등록금 동결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하다.
- 학교 위원이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안을 제안하다.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사고/명시이월의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 기타이월의 경우에는 연구학생경비 및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처리하는 안에 동의하다.
- 위원장은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
- 의결 사항
 전원 동의하에 201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예산(안)을 의결하다.
 ※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
 - 학부 등록금 동결
 -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등록금 동결
 - 학부 계절학기 등록금 동결
 - 대학원 정규등록 외 등록금 동결
- 폐회
 위원장은 2015학년도 위원회를 정리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5년 1월 15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서 혁	서혁	위 원	석인선	석인선
위 원	이외숙	이외숙	위 원	서미옥	서미옥	
위 원	김미환	불참	위 원	우지수	불참	
위 원	임재희	불참	위 원	정새미	정새미	
위 원	유혜련	유혜련				
작성 자	예산팀 이 은 정 (인)					